

하나님의 축복은 들어가도 축복, 나와도 축복이다

본 문 신명기 28장 6절

『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』

◎ 오늘은 <2018년 꿈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그전에 먼저 성령님의 계시를 잠깐 전해 주겠습니다.

1.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“<꿈>보다 ‘현실’ 이다.” 하셨다. 이 말씀은 “<꿈>보다 <현실>을 풀어라. <꿈>보다 현실에서 무엇을 했는지,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풀어라.” 함이다. 곧, <현실에서 겪은 것>과 <현실에서 겪을 것>을 ‘꿈’ 으로 보이니, <꿈>보다 ‘현실’ 을 풀라는 말이다. 또 하나는 “<꿈>보다 ‘현실’ 이 중하니, <꿈>을 안 꺾어도 ‘현실’ 에서 잘해라.” 함이다.
2. <꿈>을 안 꺾어도 ‘현실’ 에서 잘하면, <좋은 꿈>을 꺾은 것과 같다. 고로 “<꿈>보다 ‘현실’ 이다.” 라는 말은 “<꿈>을 안 꺾어도 ‘현실’ 에서 계시해 준다.” 는 말이다.
3. 꿈에서 ‘선생이 가끔 가는 곳’ 을 갔다. <꿈>에서 깨고 생각하는데, 무슨 꿈인지 조금밖에 생각이 안 났다. 그래서 ‘무슨 꿈인가?’ 하고 계속 생각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,

“〈꿈〉보다 ‘현실’ 이다. 〈현실〉이 중하다. 〈지금 현실에서 할 일〉을 해라.” 하셨다. 그래서 더 이상 무슨 꿈인지 생각하지 않고, 〈지금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〉을 했다. 곧 〈지금 현실에서 성령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쓰는 일〉이다.

◎ 〈이때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의 글〉을 전해 줄 테니,
잘 듣기 바랍니다.

이 말씀이 올해 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.

4. 〈하나님의 축복〉은 ‘짜의 축복’ 이다.

5. 〈짜의 축복〉이란, ‘육적 축복’ 과 ‘영적 축복’ 두 가지 축복을 뜻한다.

6. 〈사람의 축복〉은 ‘육적 축복’ 한 가지다. 오직 하나님만 〈육적 축복〉과 〈영적 축복〉 두 가지를 주신다.

7. 〈하나님의 축복〉은 ‘들어가도 축복, 나와도 축복’ 이다. ‘어디를 가도 받는 축복’ 이다.

8. 〈하나님〉께서 ‘보낸 자’ 를 통해 축복하시면, 〈육적 축복〉과 〈영적 축복〉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. 어디를 가도 ‘복’ 을 받는다. 전쟁터에 갔어도, 거기서도 ‘복’ 을 받는다. 고로 ‘전쟁의 죽음’ 이 피해 간다. 자기가 죽음을 피하기도 하지만,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 능력으로 ‘죽음’ 이 피해 간다.

9. 선생도 베트남전쟁 때 수십 번이나 죽을 뻔했지만,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살았다. <어둠>이 ‘빛’을 피해 가듯, 어둠과 같은 <죽음>이 항상 나를 피해 갔다. <하나님의 축복>을 받으면, 어디를 가든지 ‘복’을 받는다.
10. <자기 행위>가 불의하면, ‘하나님의 축복’을 받을 수 없다.
11. <자기 행위>가 ‘의의 세계’에 속해 빛나면 어둠·죽음·고통·악과 불의가 자기를 피해 가지만, <자기 행위>가 ‘불의의 세계’에 속해 어두우면, 어둠이 자기를 삼킨 바 된다.
12. <의의 세계>에 속해서 <하나님의 축복>, <주의 축복>을 받아야 된다. 그래야 어디를 가도 ‘양면성 축복, 짝의 축복’을 받는다. 고로 <화>도 ‘복’이 된다.
13. 하나님은 보기에 합당하면 ‘양면성 축복, 짝의 축복’을 주신다.
14. <아브라함>은 이 축복을 받았다. 고로 환경을 초월해서 어디를 가든지 ‘복’을 받았다. 반면 아브라함의 조카 <롯>은 ‘하나님의 축복’을 못 받아서 그 좋다는 소돔 땅에 갔어도 ‘물질 축복’을 못 받았다. 결국 소돔 땅은 ‘하나님의 심판 장소’가 됐다. 그 심판의 장소에서 겨우 죽음을 면하는 축복만 받았다.
15. <다윗>도 하나님이 주시는 ‘그 시대 짝의 축복’을 받았다.

고로 왕이 되어 ‘육적 축복’도 받고, 영으로도 ‘하늘의 축복’을 받았다.

16. <읍>도 ‘육적 축복’과 ‘영적 축복’ 두 가지를 받았다. 시험이 왔을 때도 사탄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니,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로 또 축복해 주셨다.

17. <성경의 인물들>뿐 아니라 <지금 이 시대>도 그러하다.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<내 보낸 자>가 축복하면, 모두 이 같은 축복을 받고 영육 형통케 된다. <보낸 자의 축복>이다.” 하셨다.

18. <섭리사>는 1999년에 환난을 당하면서 그때 ‘하나님께서 주신 축복’을 뺏겼다. 그때 꿈에 보니, 선생이 살던 초가집이 불에 타고 있었다. <초가집>은 ‘육’을 의미한다. 곧 ‘육적인 것’이다. 그때는 <영적>으로만 축복을 받을 때였다. 고로 <육적>으로는 가진 것이 ‘초가집’ 정도였다. <육적>으로는 겨우 먹을 만큼만 주셨다. 실상 가진 것도 없으니, 빈 몸으로 다니면서 선교했다. 겨우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하다가 <시대 십자가>를 질 때, 그나마 환난으로 인해 가진 것들을 뺏기게 됐다. 그때는 하나님 앞에 ‘시대 조건’을 다 세우지 못한 때였다. 마치 결혼 전에 연애 기간이 있듯, <하나님과 성자와의 연애 기간>, <역사의 연애 기간>이었다. 결국 <주>가 ‘시대의 죄’를 대신하고 조건을 세워서 <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>을 ‘휴거’로 이루니, 연애 기간이 끝나고 ‘결혼’한 격이 되었다. 고로 하나님은 다시 ‘근본의 것’으로 축복해 주셨다. 이제 <하나님의 시대 신부>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‘이 시대에 속한

것들’ 을 다 쓰게 되었다.

19. 사탄도, 세상 그 누구도 <하나님의 것>을 못 가지고 간다. <초가집>이 불타니, 다시 ‘새 집’ 을 지은 격이 되었다.

20. <하나님의 창조 목적, 사랑 휴거>를 위해 ‘신부의 조건’ 을 세우니, 하나님은 ‘축복’ 을 주셨다. <육적 축복>과 <영적 축복>, 두 가지 축복을 모두 주셨다. 고로 ‘들어가도 축복, 나와도 축복’ 이 되었다. <영원한 황금성 천국>을 차지하고 <시대 하나님의 전>을 차지했으니, ‘하나님 주권권의 축복’ 을 모두 받은 것이다.

21. <한 가지 축복>은 ‘온전한 축복’ 이 못 된다.

22. <육적 축복>을 받고 ‘육신 한때’ 누렸어도, <영적 축복>을 못 받으면 ‘영’ 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. <육>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려다 <영>이 그같이 되었으니, 자기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마저도 후회하며 산다.

23. <동성 사랑>은 하나님이 주시는 ‘짜의 축복’ 이 아니다. <이성 사랑>도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 아니면, ‘한 가지 축복’ 에 해당된다. <하나님의 뜻>에 속하지 않으면, ‘육에 속한 사랑’ 이기 때문이다.

24. 하루를 살아도 <육적으로 자기를 중심>해서 살면, 그 역시 ‘한 가지 축복’ 만 누리는 자이다. 이런 자는 ‘혼자 자기만

사랑하며 사는 자' 와 같다.

25. 하나님은 ‘짜’ 으로 창조하시고, ‘짜’ 으로 축복해 주신다.

26. 하나님은 <월명동 작품>도 모두 ‘짜’ 으로 주셨다. <남자 격, 하나님 상징 돌>인 <생명나무 돌 작품>도 ‘짜’ 이 있는데, 곧 <여자 격, 시대 신부 상징 돌>인 ‘과일 형상 작품’ 이다.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‘짜’ 으로 주셨다. 또 <3.16 휴거기념관>을 중심으로 섭리사 성전들도 상대 짝이 되는 성전이 2개 있다. 섭리사 한 지역의 <남자 격, 하늘 상징 작품 성전>과 다른 한 지역의 <여자 격, 시대 신부 상징 작품 성전>이다.이 두 가지가 ‘짜’ 이 되어 대결작이 됐다.

27. <짜>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렵다. 먼저 <하나>를 찾았어도 <다른 하나>는 다른 자가 먼저 찾기도 하기 때문이다.

28. <성자바위>는 ‘자체적으로도 짝’ 이 있고, 그리고 ‘상대적으로도 짝’ 이 있다. <자체적인 짝>은 ‘인독수리 형상’ 이고, <상대적인 짝>은 ‘큰바위얼굴바위’ 이다.

29. <월명동 지형>도 ‘남쪽 남자 형상’ 과 ‘북쪽 여자 형상’ 두 개의 산이 ‘짜’ 으로 일체 되어 각종 형상을 이루고 있다.

30. <알파와 오메가 = 처음과 나중>, 곧 <삼위와 주를 상징하는 바위 작품>도 ‘짜’ 있다. <남동쪽>에 ‘알파바위’ 하나가 있고, <서쪽 끝>에 ‘오메가바위’ 하나가 있다. 바위틈에 소나무

도 같이 있다. 그리고 북쪽에도 <유방바위>라고 하는 ‘알파바위’가 있다. 이것과 짝이 되는 ‘오메가바위’는 <보지마바위>다. 각각 바위 옆에 ‘큰 소나무’가 크고 있다.

31. <월명동 소나무들>도 사연으로 ‘ 짝 ’ 이 되어 있다. <소를 묶던 두 그루의 소나무>가 ‘잔디성전 위’에 짝으로 있고, 선생을 상징하는 <Y자 소나무>도, <동그래산 쪽 소나무>도 ‘ 짝 ’ 으로 있다.

32. <선생이 성자를 만난 회골 술>과 ‘ 짝 ’ 은 <조은 목사를 전도한 곳에 있는 치타술>이다. 같은 회골에 있다.

33. 자연성전 동북쪽의 가브리 홍술인 <여호와이레술>과 ‘ 짝 ’ 은 <남쪽의 야심작 사랑술>이다.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나무들로, 모두 회골에서 가지고 왔다. <야심작 사랑술>은 ‘여자 상징’이고, <가브리 홍술>은 ‘남자 상징’이다. 두 그루가 한 쌍이다.

34. <낙타바위>도 ‘암컷’과 ‘수컷’이 짝으로 있다.

35. <폭포수>도 ‘ 짝 ’ 이 있다. <호수 옆 하나님 상징 폭포>와 <연회장 성령님 상징 폭포>다.

36. <월명동에 들어오는 길>도 ‘한 쌍의 짝’이 있다. 이같이 월명동 작품은 다 ‘ 짝 ’ 이 있다. 아직 <짝이 없는 것>은 앞으로 만들고, 삼위도 주신다.

37. <하나님의 축복>은 ‘짜’ 으로 받는다. 고로 ‘짜’ 을 찾으면, ‘영원한 축복’ 이다.
38. <영원한 짜의 축복>을 받으려면 ‘영원하신 하나님’ 을 사랑하고, ‘삼위의 사랑의 짜’ 이 돼야 한다. - 이것이 ‘진짜 양단의 축복, 짜의 축복’ 이다.
39. 어느 시대든지 <하나님이 보낸 구원자>는 ‘신랑’ 이고 <그를 맞고 구원받고 사는 자>는 ‘신부’ 다. <신랑>과 <신부>는 ‘짜’ 이다.
40. <짜>이 되면, ‘영원한 축복, 양단의 축복’ 이다. <들어가도 축복, 나와도 축복>이다. 하나님은 ‘시대 보낸 자’ 를 통해 이 축복을 주신다.
41. 주가 ‘십자가 고난 중’ 에 들어가 있었어도 <해 줄 것>을 다 해 주며 <휴거의 축복>까지 줬다. 이제 주가 ‘부활’ 하여 ‘영광’ 으로 나왔으니, 육으로도 영으로도 더욱 <축복의 역사>가 펼쳐진다.